

숲

휴식·치유 선사하는 몸과 마음의 안식처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데는 숲이 최고다. 초록빛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쾌한 기운과 싱그러운 냄새가 심신을 일깨우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저만치 날려버린다. 인류의 안식처였던 숲은 어머니 품처럼 위안과 평화를 가져다준다. 많은 이들이 숲을 찾아나서는 까닭이다. 심신에 안식과 치유를 선사하는 숲으로 여행을 떠나본다.

사진 전수영 기자·글 임동근 기자



하얀 나무껍질
시원스런
동화 같은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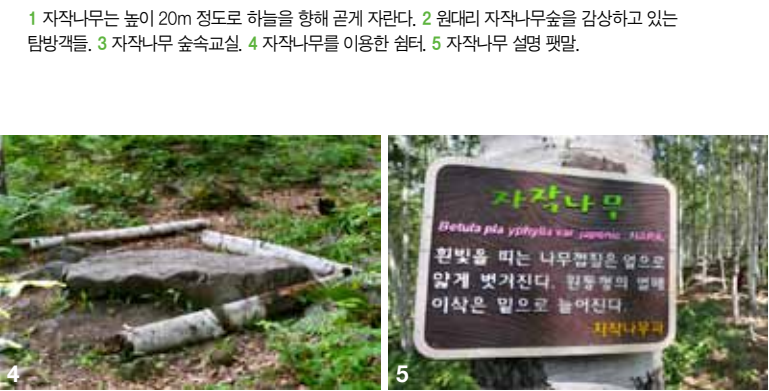
자작나무는 줄기의 껍질이 종이처럼 하얗다. 자작나무가 모여 있는 숲은 한여름에도 함박눈이 내린 듯 시원스럽다. 강원도 인제 원대리에 가면 순수한 자태로 모여서 이국적인 풍광을 선사하는 자작나무 군락을 만날 수 있다.



2



3



4



5

1 자작나무는 높이 20m 정도로 하늘을 향해 곧게 자란다. 2 원대리 자작나무숲을 감상하고 있는 탐방객들. 3 자작나무 숲속교실. 4 자작나무를 이용한 쉼터. 5 자작나무 설명 팸말.

강원도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은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으로 불린다. 바람이
지날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나는 소리가
속삭이는 것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매력적이고 유용한 '우유 빛깔' 자작나무

자작나무는 매력적이고 쓸모 많은 나무다. 새하얗고 매끈한 피부에 하늘을 찌를 듯 흰칠하게 큰 키는 동화나 만화책 속에서 튀어나온 왕자나 공주 같다. '우유 빛깔'이란 말이 꼭 어울리는 곱고 출중한 외모다.

자작나무는 옛날 혼례에도 사용된 듯하다. 혼례를 '화촉을 밝힌다'고 하는데 여기서 화촉은 혼례 때 사용하는 빛깔을 들인 밀초였다. 화촉의 재료가 바로 자작나무였다고 한다. 불에 탈 때 '자작자작' 소리를 내서 '자작나무'란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도 있다.

자작나무는 또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다. 경주 천마총에서는 글자를 새긴 자작나무 껍질이 발견됐고, 팔만대장경에 사용된 목재의 일부도 자작나무로 제작됐다. 하지만 자작나무는 쉽게 볼 수 있는 수종이 아니다. 추운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북의 심산에 주로 분포한다. 남한에서 보이는 자작나무는 거의가 식재된 것이다. 인제 원대리를 비롯해 황성과 태백의 자작나무숲은 모두 인공으로 조성된 것이다.



1 햇살이 자작나무숲을 비추면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2 원대리 자작나무숲 안내소. 3 자작나무 껍질이 벗겨져 있다.
4 탐방로에는 산신령이 나타난다는 샘이 있다.
5 1년 후에 받아보는 엽서를 넣는 우체통.



요정이 사는 듯한 숲 속을 거닐다

원대리 자작나무숲을 찾아가는 여정은 도로 옆 안내소에서 시작된다. 안내소에서 방명록을 작성한 뒤 S자 임도를 따라 올라간다. 대규모 자작나무 군락까지의 거리는 임도로 3.2km지만 급경사가 없이 완만해 가족, 친구, 연인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사부작사부작’ 걸어 오르기 좋다. 오르는 길 중간 중간에는 진초록 빛깔 송림 사이에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얀 줄기를 드러낸 자작나무도 관찰할 수 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문득 꿈결처럼 희뿌연 풍경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오후 햇살이 자작나무 사이를 부챗살처럼 파고들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아름답고 기품 있는 모습. 왜 자작나무를 ‘나무의 여왕’이라고 부르는지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곳 숲은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으로 불린다. 숲에 바람이 지나면 자작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나는 소리가 꼭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숲 속에 발을 들이면 금방이라도 아리따운 요정들이 여기 저기서 튀어나올 것만 같다.

산속에 걸린 풍경화 한 폭

원대리에 원래부터 자작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전 그곳에서는 화전민들이 집을 짓고 밭을 갈았다. 1974년부터 화전민의 터전에 자작나무, 잣나무, 낙엽송이 식재됐지만, 그것도 잠시 1988년 솔잎혹파리가 일대를 초토화시켰다. 산림청은 병충해에 강한 자작나무 70만여 그루를 다시 심었다. 이곳 자작나무의 수령이 30년이 안 되는 이유다. 희뿌연 숲 속 곳곳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눈에 띈다. 탐방객들마저 동화에서 튀어나온 요정처럼 느껴진다. 탐방로를 따라 천천히 걷거나 자작나무 의자에 앉아 숲에 시선을 던져두고 휴식과 자유를 만끽한다. 출사

자작나무숲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걷다 보면 일상의 피로가 저만치 달아나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자작나무숲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된다.



명소답게 카메라에 풍경을 담는 이들도 더러 보인다. 자작나무숲을 카메라에 담던 이정숙(66)씨는 “카메라 장비를 들고 올라올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자작나무숲을 본 순간 모든 피로가 다 사라져버렸다”며 “햇살 퍼지는 자작나무숲이 너무 아름답다”고 했다.

탐방로에서 숲을 호흡하고 엿보다

숲 속에는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을 한 바퀴 도는 자작나무 코스(0.9km)를 비롯해 치유코스(1.5km), 탐험코스(1.1km) 등 탐방로가 마련돼 있다. 탐방로에서는 자작나무숲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풀벌레 소리와 청아한 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다. 자작나무 사이에서 고개를 내민 국수나무, 오갈피나무 등 다양한 식물도 볼 수 있다. 숲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있지만 자작나무숲 속에서 보는 풍경이 더 멋진 듯하다. 자작나무숲에는 줄기 밑동이 까만 나무들도 있다. 바로 옆 꺾말에는 ‘자작나무가 아파서 울고 있어요!’란 글귀가 담겨 있다. 탐방객들이 수피를 벗겨내 더 이상 재생되지 못하는 상처 입은 나무들이 안쓰럽고 안타깝다. 원대리 자작나무숲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머릿속 가득하던 번민과 고뇌가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선사하는 치유를 맛볼 수 있다. 굳이 수피를 벗겨 가져가지 않아도 마음에 황홀한 추억 한 줌 오롯이 남겨준다.



6 녹음이 짙은 ‘자작나무 코스’ 탐방로. 7 자작나무숲 숲길 탐방 안내도.
8 자작나무숲이 있는 원대리에 해가 떠오르고 있다.





나무 향기와 꽃 내음 가득한 수목원

아침고요수목원은 나무와 꽃의
낙원이다. 나무와 꽃이 저마다의 자태를
마음껏 발산한다. 사계절 언제 방문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1



2

1 마루에 누워 쉬고 있는 아침고요수목원 방문객 2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침고요수목원
3 달빛정원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 4 기와집과 초가집이 있는 한국정원 5 J의 오두막정원

수목원은 다양한 수목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휴양림처럼 숙박이나 야영, 취사를 할 수 없지만 나무와 꽃을 가까이에서 만나 즐길 수 있다. 드넓은 공간에 15개 전문 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갖춘 국립수목원, 세계적으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태안반도의 천리포수목원, 언제나 방문객이 줄을 잇는 아침고요수목원 등은 저마다 개성 넘치는 모습으로 세파에 지친 이들에게 여유와 즐거움, 치유를 선사한다.

축령산 자락 돌밭에 들어선 수목의 낙원

아침고요수목원은 1996년 경기도 가평군 축령산 자락 33만㎡에 조성됐다. '아침고요'라는 이름은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한 데서 따왔다고 한다. 원래 이곳은 화전민이 정착했다가 이후 마을 주민들이 염소를 키우던 돌밭이었다. 설립자인 한상경 당시 삼육대 원예학과 교수는 1993년부터 3년여에 걸쳐 굴삭기로 길을 내고 맨손으로 땅을 개간해 한국정원, 야생화정원, 하경(下景)정원 등 주제별 정원을 마련하고 식물 5천여 종을 갖춰 불모의 돌밭을 정원으로 변신시켰다. 개원 이듬해에는 영화 '편지'의 촬영지로 소개되며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다. 아침고요수목원에는 이후에도 계속 정원과 시설이 늘어났고, 현재 이곳은 하경정원, 에덴정원, 본재정원, 한국정원 등 25개의 특색 있는 주제정원과 실내 전시실 3곳에서 식물 5천여 종을 관찰하며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국내 최고 명소가 됐다.



4



5

수목원은 다양한 수목을 한데 모아놓은 공간이다. 아침고요수목원에 가면 25개의 특색 있는 정원에서 식물 5천여 종을 관찰하며 휴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눈길과 마음을 빼앗는 정원

아침고요수목원은 부지가 넓어 매표소에서 나눠주는 지도를 보고 탐방 계획을 미리 짜고 돌아보는 것이 좋다. 수목원측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매표소를 지나면 가장 먼저 오른쪽으로 고향집정원이 나타난다. 정겨운 초가집과 장독대가 있고 정원에는 진달래, 목련, 채송화가 피는 곳이다. 고향집 내부에는 아침고요수목원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가 사진과 함께 설명돼 있다. 골든레몬타임, 불가리스백리향, 자엽바질 등 이름도 생소한 허브 식물이 뿜어내는 향기에 취해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산수경온실에 닿는다. 기암과 식물, 초가와 기와 모형, 장독대를 이용해 우리나라 산수를 표현한 곳으로 마치 진경산수화 여러 폭을 걸어 놓은 듯하다. 다음 코스는 가파른 언덕이다. 고산식물을 암석과 함께 조성한 고산암석원을 둘러보며 오르다 보면 수목원의 싱그러운 초록빛 전경이 발아래 펼쳐진다. 온갖 나무가 뾰뻑하게 들어찬 수목원은 예쁘고 정갈했다. 언덕을 내려와 무수하게 꽃이 만개한 야생화 정원과 침엽수정원을 지나 달빛정원으로 향한다. 그 곳에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작고 새하얀 예배당이 있다.



1 고산암석원 연못에 연꽃이 피었다. 2 진경산수화를 보는 듯한 산수경온실 내부. 3 산수경온실에 있는 기와집 모형.



상쾌한 산책길과 눈부신 하경정원

튤립, 꽃양귀비와 백화, 풍접초와 국화 등 화사한 꽃이 사계절 피고 지는 하늘길은 아침고요산책길과 이어진다. 잣나무와 일본잎갈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다. 바닥도 흙길이라서 천천히 거닐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산책길이 짧은 것이 그저 아쉽다. 기와집과 초가집이 있는 한국정원에서는 마루에 걸터앉아 잠시 쉬어도 좋다. 정원 앞으로는 팔각정과 아치 모양 석교가 있는 연못인 서화연이 있다. 여름에는 보라색 붓꽃이 만개해 아름다움과 낭만적인 분위기의 절정을 이룬다. 하경정원은 수목원의 백미다. 우리나라 지도 모양으로 정원을 꾸며놓은 곳으로 계절마다 나무들이 색다른 미를 발산한다. 정원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갖가지 빛깔의 나무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4, 5, 6 팔각정과 석교가 아름다운 서화연. 여름에는 보라색 붓꽃이 활짝 피어나 낭만적인 광경을 보여준다.

숲 속에서 체험하는 힐링의 참맛

숲 속 힐링 프로그램이 현대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숲 속을 거닐고 호흡하며 나무를 만지고 자연의 소리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스스로의 심신을 치유해가는 과정이다. 숲 속에서 진정한 휴식과 치유를 맞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해봤다.





1

초록빛 싱그러운 숲 속에서 진행되는 치유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과 일에 찌든 도시인에게 평온함과 휴식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햇볕 따가운 여름날 오후, 충북 제천 주문산 자락에 있는 휴양 리조트 리솜포레스트에 30~50대 직장인 10여 명이 지팡이를 하나씩 짚고 모였다. 숲 속 힐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 삶과 일에 찌들었는지 하나같이 표정이 잔뜩 굳어 있다. “선조들이 걸었던 산길과 숲길을 따라가는 산책입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걸으며 그동안 놓친 것들을 찾고 나에 대해 되돌아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몸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박정수 힐링 메이트의 동작을 따라하며 각자 몸 상태를 체크한다. 차려 자세를 하거나, 눈을 감은 채 제자리걸음 후 변경된 위치를 보며 몸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확인하고 몸속에 쌓인 스트레스도 알아본다.

준비 운동을 마친 후 지팡이를 짚고 산길로 접어들었다. 소나무 밑동에는 일제강점기 군수물자로 사용하기 위해 송진을 채취했던 커다란 흔적이 V 자 형태로 남아 있다. 참가자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소나무의 상처를 만져본다. 산초 이파리의 냄새를 맡아보고, 길옆에 있는 나무나 풀의 이름을 하나씩 알아가며 참가자들은 서서히 숲에 동화돼 간다.

“산을 오르내리는 굴곡이 인생의 굴곡과 닮아 있다고 해요. 눈을 감고 귀를 활짝 열고 풀과 흙냄새를 맡아보세요.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르막 계단 길에서는 한 명이 눈을 감고 다른 한 명이 말로 방향을 이끌어준다. 설명에 귀를 쫓듯 세우며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하나씩 옮긴다. 두려움 때문인지 상대방을 잡은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

한 여성 참가자는 “손을 잡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으니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 두려웠다”며 “설명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좋은지 몰랐다”고 했다. 힐링 메이트는 “인생은 때론 눈을 감고 가야 할 때가 있지만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힘들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제 숲 한가운데 흙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 명상에 잠긴다.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새소리와 바람소리, 나뭇잎 흔들리

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 세상의 시름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다. 참가자들은 1년 후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산을 내려갔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 이후 참가자들의 표정은 한결 부드럽고 밝아져 있었다.

참가자 류길홍(54)씨는 “처음에는 숲 해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 바로하기, 숲길 걷기, 명상 등 숲 속에서 여러 가지를 체험하니 좋았다”며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심신을 치유하는 숲 속 프로그램

삼림욕이 심신 건강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각종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고혈압, 아토피,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가 발산하는 피톤치드, 맑은 공기, 자연의 소리가 복합적으로 심신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리솜포레스트에서와 같은 숲 속 치유 프로그램은 경기도 양평 산음 치유의 숲(☎ 031-774-7687), 강원도 횡성 청태산 치유의 숲(☎ 033-340-6305), 전남 장성 치유의 숲(☎ 061-393-1777), 경기도 가평 잣향기 푸른숲(☎ 031-8008-6770), 그리고 최근 문을 연 제주도 서귀포 치유의 숲(☎ 064-760-3031) 등에서 경험할 수 있다.

치유 프로그램은 제각각이다. 산음 치유의 숲의 경우 삼림욕 체조, 맨발 걷기, 족욕, 명상 등으로 구성되고, 청태산 치유의 숲은 숲의 자극 체험하기, 삼림욕과 풍욕 즐기, 걷기 명상, 다짐판 만들기, 호흡법과 명상기법 이용, 물치유와 열치유 등을 내용으로 진행한다. ①



5

5, 6 리솜포레스트에서는 힐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 이외에 숲 속에서 스파를 즐기며 피로를 풀 수도 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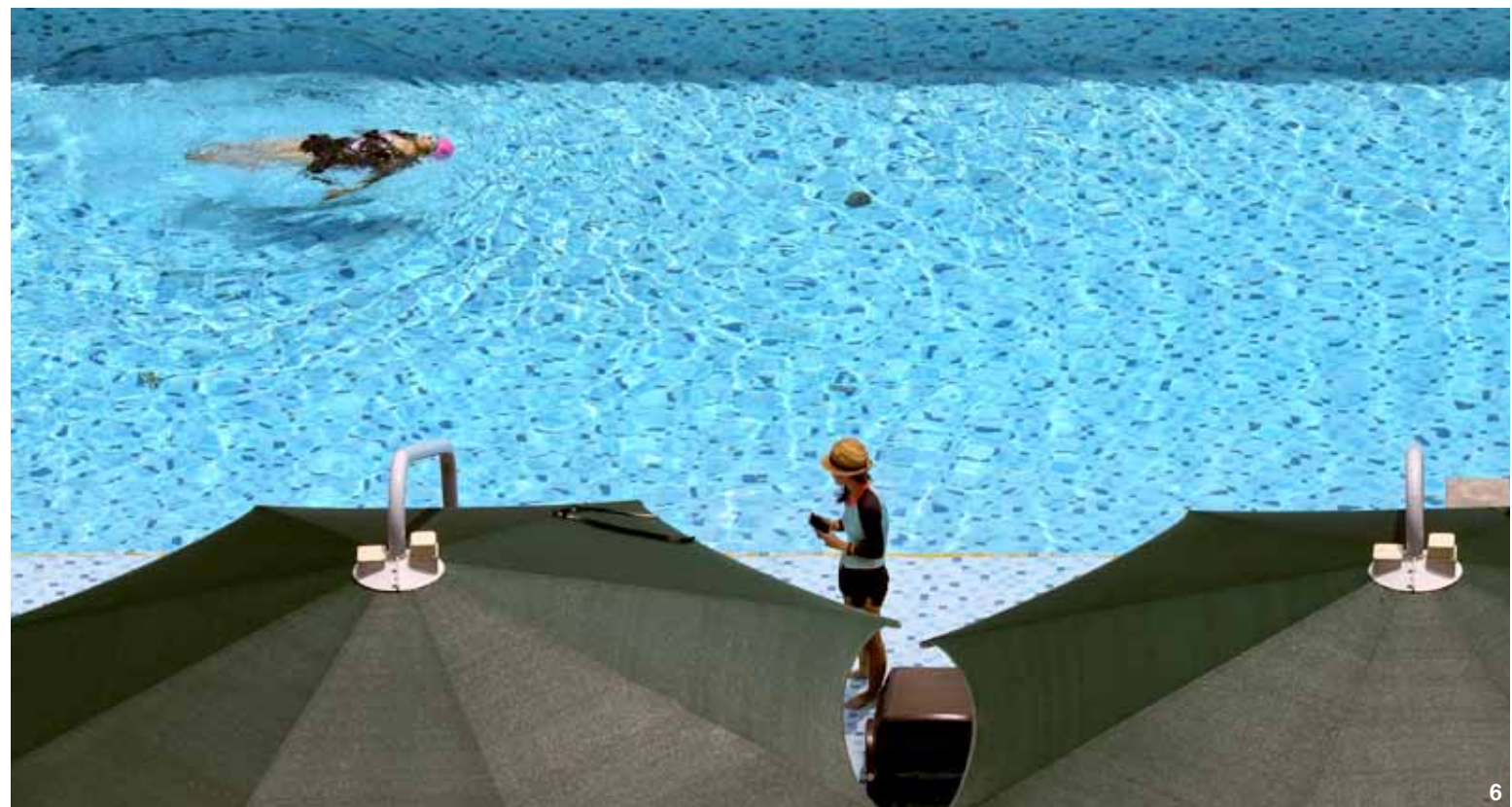


3

1, 2 리솜포레스트 숲 속 힐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고 숲을 가늠고 있다. 3 손을 잡고 걷는 참가자들. 4 소나무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자연과 교감하고 있다.



4



6

INFORMATION

숲 휴양림·수목원 여행 정보

전 국토의 64%가 산지인 우리나라에는 도심을 벗어나기만 하면 숲이 꽤 많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힐링 숲을 소개하고, 휴식과 치유에 좋은 휴양림과 수목원을 안내한다.

힐링 숲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통영 미래사 편백 숲

경남 통영시 미륵산에 있는 미래사 편백 숲은 숲길과 푸른 바다의 정취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편백 숲길은 70여 년 전 일본인이 심은 것을 해방 뒤 사찰에서 매입해 산책로를 꾸민 것이다. 하늘을 향해 쪽쪽 뻗은 편백나무 숲 사이로 오솔길이 있어 산책하듯 거닐며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숲에 들어서면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은은한 향기가 후각을 자극하며 몸과 마음에 안식을 준다. 편백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항균·살균 작용은 물론 아토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맨발로 편백 숲을 거닐 수 있는 나폴리농원이 미래사 아래에 있다. ☎ 055-650-0712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영양 대티골 아름다운 숲길

경북 청송군에서 영양군, 봉화군, 강원 영월군을 잇는 ‘외씨버선길’의 일부다. 탐방로는 일월면 용화리 웅대티골에서 시작하는 옛국도길(3.5km)을 비롯해 칠발길(0.9km), 옛마을길(0.8km), 땃골길(1.2km) 등이 있다. 숲해설사와 함께 전부 걸거나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걸어도 된다. 예약하면 대티골 황토구들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각종 산나물로 차린 밥상을 맛볼 수 있다. 시인 조지훈 생가와 문학관, 소설가 이문열이 유년 시절을 보낸 석간고택, 조선 시대 민가의 대표 연못인 영양서석지, 영양반딧불이생태공원과 영양반딧불이천문대 등을 연계해 여행할 수 있다. ☎ 054-680-6413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진도 침찰산 상록수림

전남 진도에 있는 침찰산(485m)은 소치 허련이 그림을 그리며 말년을 보냈다는 운림산방 뒤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10m가 훌쩍 넘는 상록수가 하늘을 덮어 그늘이 깊고 짙다. 가장 짧은 코스는 쌍계사에서 출발해 진도아리랑비 쪽으로 내려오는 길로, 오르는 길이 3km, 하산길이 1.8km 이다. 정상 부근을 제외하면 뽀뽀한 상록수와 울창한 숲이 짙은 그늘을 만들어 한낮에도 상쾌하다. 운림산방, 진돗개테마파크, 조개잡이 체험장으로 알려진 죽림어촌체험마을, 울돌목 물살 체험장 등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 061-540-3405~8

휴양림



충북 괴산 대야산자연휴양림

대야산과 둔덕산 사이로 흐르는 웅추계곡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다. 가족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산림문화휴양관과 통나무로 지은 캐빈이 있다. 캐빈에는 취사와 샤워 시설, 침구가 없으므로 침구와 취사 도구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제1산림문화휴양관 뒤편 등산로는 둔덕산 정상까지 이어진다. 산정까지 거리는 2km로, 1시간이면 오를 수 있다. 신라9산선문의 봉암사, 견훤유적지, 운강 이강년 생가지, 문경새재 등이 인근에 있다. ☎ 054-571-7181



경남 남해 편백자연휴양림

남해 편백자연휴양림은 사계절 삼림욕이 가능한 곳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 부지에 편백나무 100만 그루가 있다. 편백나무에는 건강에 좋은 피톤치드가 어떤 나무보다 많아 숲길을 거닐면 가슴이 탁 트이고 머리가 맑아진다. 숲속의 집 25동, 산림문화휴양관 1동, 숲속수련장 1동, 야영 데크 28개가 있다. 매표소에서 숲속의 집을 거쳐 임도와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전망대인 한려정(閑麗亭)이 나온다. 이곳에서 편백나무 숲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감상할 수 있다. ☎ 055-867-7881

수목원



사진 / 국립수목원 제공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

100ha 전문 수목원과 1천18ha의 천연 수목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 수목원에는 침엽수원, 활엽수원, 외국수목원, 고산식물원, 습지식물원, 수생식물원, 약용식물원, 맹인식물원 등 15곳이 있다. 천연 수목원에는 식물 약 800종과 균류, 선태류, 곤충, 조류 등이 서식하고 있다. 수목원 중앙에는 한국 산림과 임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산림박물관이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한 후 입장할 수 있으며, 하루 입장 인원도 제한된다.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쉰다. ☎ 031-540-2000



사진 / 천리포수목원 제공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

태안반도의 서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한 수목원으로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지정됐다. 국내 최대 식물종 보유 수목원으로, 희귀식물이 가득하다. 탐방로를 따라 가면 나무가 하늘을 가릴 듯한 숲길을 지나고 전망대에서는 천리포해변을 감상할 수 있다. 설립자인 민병갈의 삶을 보여주는 기념관과 밀러가든 갤러리도 있다. 수목원으로는 특이하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숙소인 가든하우스와 에코힐링센터가 있다. ☎ 041-672-9985